

韓國傳統庭苑에 대한 景觀選好에 관한 比較 文化的 研究

鄭聖愷 · 沈愚京

高麗大學校 園藝科學科 造景學研究室

A Cross-cultural Comparisons for Landscape Preference on Korean Traditional Garden

Chung, Sung-Hye · Sim, Woo-Kyung

Landscape Design Group, Dept. of Horticultural Science, Korea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ross-cultural comparison of landscape preferences among Korean, Japanese and Western groups, and to get some clues to be used in judging this cultural influence.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fundamental data for design theory of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Natural factors including vegetation, water and rock, structural factors and spatial factors could be significant variables on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The mean preference scores for both landscape element and landscape spa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1$, $p < 0.05$) with the Korean most preferred, the Western in the middle, and Japanese least. There were both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landscape preference among Korean, Japanese and Western groups.

I. 序論

景觀의 아름다움은 조경학적으로 경관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景觀 選好 評價의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경관을 선호하느냐 선호하지 않느냐는 그 경관 속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존재 여부(Fiske, 1981; Simon, 1982; Mandler, 1984)와 그 경관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달려 있다.

경관속에서 인식되는 요소 중 水 요소 및 植生 요소가 특히 사람들의 선호에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하고 있다(Kaplan and Kaplan, 1982; Palmer, 1978; Ulrich, 1981).

또한 경관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평가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각과 인식의 과정에서 경관이 평가되어질 때, 그 주체인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 즉, 문화적, 직업적, 인구지표적에 따라서 경관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이, 1994).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이 경관 선호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작용하는 결과를 얻은 연구(Balling and Falk, 1982; Devlin and Nasar, 1989)와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선호를 나타낸 경우도 있다(Buhyoff 등, 1978; Tips and Savasdisara, 1986a, 1986b).

경관의 선호나 평가에 있어 문화간 유사성과 차이성이 함께 발견되고 있는데, Buhyoff 등(1978)은 덴마크인, 네덜란드인, 스위스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11개의 미국 경관의 순수한 선호도를 평가하였는데 문화간 유사성을 보였으나, 미국인과 스위스인은 굴곡있는 산림경관을 선호하고 덴마크인과 네덜란드인은 개방되고 평평한 경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숙도가 경관 선호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Hull과 Revell(1989)의 연구에서는 Bali의 원주민과 서양 관광객들에게 Bali의 경관을 평가하게 했는데, 자연적인 경관은 유사한 평가를 받았고 농업과 관련된 경관 평가에서는 Bali 원주민이 서양 관광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성에 대한 경관 평가는 文化學習理論과 進化理論을 통해 해석된다. 문화

학습이론은 프랑스인들의 토피어리 선호, 미국인들의 剪定植栽 選好(Ulrich, 1992)와 미국 서부지역민들의 자연환경 선호(Tuan, 1974) 등을 통해 설명되어지는데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특성에 의해 경관 경험이 좌우된다(Hershberger, 1980). 반면에 경관 평가의 문화간 유사성은 인간이 생활해온 자연경관에서 즉, 진화이론으로 해석된다.

서양의 문화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의 경관 선호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문화적 경험이 크게 다른 서양인과 동양인간의 경관 선호 및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양병이(1992)는 한국인과 서양인들에게 한국, 일본, 서양의 경관을 평가하게 했는데 문화간 유사성과 차이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 특히 문화적 특성에 따른 경관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韓國의 傳統景觀을 그 경관 대상으로 하고 한국의 전통조경요소 및 공간을 그 평가 기준으로 하여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의 한국전통경관에 대한 視覺的 選好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경관 평가를 환경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험실의 실험, 현장실험,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김, 1991), 현장 실험은 실험실의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실험에 비해 경관평가자의 오류나 주관은 훨씬 줄여 줄 수 있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는 이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관 선호 평가를 통해 현대 조경공간 설계시 한국적인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研究 內容 및 方法

1. 研究 對象地 選定

본 연구는 한국 전통경관의 특색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昌德宮의 각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를 그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昌德宮內 경관을 구성하는 造景要素를 지정섭(1994), 전인순(1989)의 연구에 바탕을 두어 15개를 선별하고, 일반인의 관람이 가능한 공간중 특징적인 8곳의 空間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표 1과 같다.

2. 設問紙 作成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의 내용은 첫번째로, 선별한 15개 昌德宮의 조경요소에 대한 선호도와 두번째로, 선정된 8곳의 공간에 대한 선호도로 이루어졌으며, 세번째로는, 설문지에 응답한 개인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응답자들에게 선호의 정도를 지정하도록 요청했는데 설문지의 척도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좋아한다”를 7점으로 하는 라이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3. 研究 對象

본 연구대상은 문화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西洋人을 동양의 경관에 대한 관점이 유사하리라는 점에서 인종의 구분없이 묶어서 韓國人, 日本人과 비교하였다.

이 조사는 1994년 10월에 수행되었다. 昌德宮 방문객에 총 466매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인 161명, 일본인 134명, 서양인 125명 총 420명을 조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서양인은 미국인 50명, 캐나다인 15명, 호주인 15명, 영국인 13명, 프랑스인 10명, 독일인 1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창덕궁 입장 직전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지의 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창덕궁 관람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장소에 대한 인지를 돕기 위해 두번째 설문지에 사진을 첨부하였다.

4. 分析 方法

한국전통정원 조경요소 및 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알기 위해 평균과 비모수검증을 사용, 분석하였는데, 이는 표본의 모집단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비모수 검증 방법을 채택

하였다. 집단간의 유의치는 Kruskal-Wallis Test로 실시하여 χ^2 치를 구하였다. 판별 분석을 실시하여, 15개 조경요소와 8개의 조경공간을 판별변인으로 하여 within-group covariance를 구해 한국전통 경관에 대한 선호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조경요소와 공간을 밝히고, within-group covariance를 이용하여 추정된 판별 함수로부터 세 대상간 판별력(예측 분별력)을 구해 각 대상들이 해당 대상의 특성으로 올바르게 선호했는가를 판단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분석은 개인용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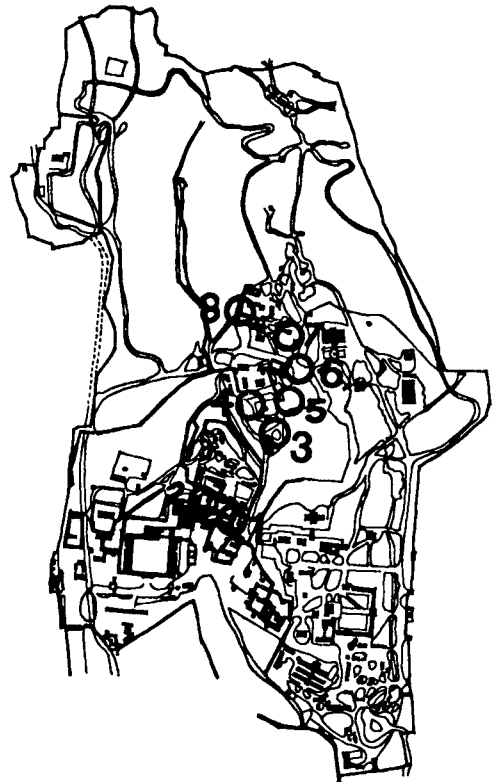


Fig. 1. Map of the studied object : Ch'angduk Palace
(Circle indicates the surveyed site.)

- 1 : Flower terrace behind TAEJOJŎN HALL
- 2 : Front garden between TAEJOJŎN HALL and HUIJŎNGDANG HALL
- 3 : Spaces around PUYŎNGJI POND
- 4 : Spaces around CHUHAMNU PAVILION
- 5 : Spaces around YŎNGHWADANG PAVILION
- 6 : Spaces around GATE OF YOUTH
- 7 : Spaces around AELEONJI POND
- 8 : The whole view of YŎNKYŎNGDANG HOUSE

Table 1. Landscape elements and landscape spaces of Korean traditional garden (Ch'angduk Palace)

Classification	Composition factors
Landscape Elements	A1 Pond
	A2 Channel
	A3 Decorative stone(Fantastic stone)
	A4 Animal sculpture
	A5 Stone carved lamp
	A6 Tree
	A7 Flower terrace
	A8 Bridge
	A9 Fence or wall
	A10 Gate
	A11 Chimney
	A12 Step
	A13 Parapet
	A14 Pavilion
	A15 Palace (Building)
Landscape Spaces	B1 Flower terrace behind TAEJOJŎN HALL
	B2 Front garden between TAEJOJŎN HALL and HUIJŎNGDANG HALL
	B3 Spaces around PUYŎNGJI POND
	B4 Spaces around CHUHAMNU PAVILION
	B5 Spaces around YŎNGHWADANG PAVILION
	B6 Spaces around GATE OF YOUTH
	B7 Spaces around AELEONJI POND
	B8 The whole view of YŎNKYŎNDANG HOUSE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version 6.03)을 이용하였다.

Ⅲ. 研究 結果 및 考察

1. 韓國人의 韓國傳統庭苑에 대한 選好度 分析

1) 韓國傳統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 分析

한국인의 한국전통조경요소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표 2), 樹木을 가장 선호하고 (평균 6.44), 亭子 (평균 6.17), 建築物 (평균 6.06),

池 (평균 5.9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목이 울창한 계절이므로 자연적 요소와 건물적 요소를 크게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은 조경요소에 대해 5점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일본인과 미국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전통 조경요소에 대한 선호 경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Within-class covariance matrix로 인한 판별분석의 결과 굴뚝이 2.312로 최고치를 나타내어 한국인이 한국전통조경요소의 선호도를 판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 怪石(2.040), 石獸(2.028) 등으로 石요인이 나타난 조경요소가 주요 판별변인임이 나타났다.

2) 韓國傳統造景空間에 대한 選好度 分析

한국인은 芙蓉池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6.2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宙舍樓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5.87), 愛蓮池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5.75)을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2). 한국인은 水요소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미국인에 비해 조경요소보다도 조경공간에 대해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 대상 중 가장 선호경향이 높다고 생각된다.

판별분석의 결과는 大造殿 뒤뜰 花階(2.356), 芙蓉池를 중심으로한 공간(2.205), 愛蓮池를 중심으로한 공간(2.139)이 한국인의 한국전통조경공간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판별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日本人의 韓國傳統庭苑에 대한 選好度 分析

1) 韓國傳統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 分析

일본인은 建築物(평균 5.75), 門(평균 5.57), 樹木(평균 5.51)을 한국전통조경요소 중 크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2).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물적인 요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목 요소는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에서 선호하는 요인이었는데 울창한 수목 요소가 계절의 특징을 대변해준다.

일본인은 조경요소 선호도에 주로 4점대의 낮은 점수를 주었는데, 세 대상 중 가장 낮은 선호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Within-class covariance matrix에 의한 판별분석의 결과는 池(2.618)가 한국전통조경요소의 선호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 水요소가 많이 형성되어져 있어 인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花階(1.976), 굴뚝(1.939) 등이 판별정에 영향을 미쳤다.

Table 2. Comparison of preference mean for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elements and landscape spaces

Variables	Korean (N=161)	Japanese (N=134)	Western (N=125)
Landscape elements ²⁾			
A1	5.94	4.34	5.84
A2	4.98	4.07	4.71
A3	4.72	4.37	5.25
A4	4.94	4.78	5.29
A5	5.13	4.63	5.17
A6	6.44	5.51	6.42
A7	5.56	4.72	5.11
A8	5.45	4.88	5.49
A9	5.47	5.18	5.39
A10	5.29	5.57	5.86
A11	5.27	4.97	5.26
A12	4.81	4.25	4.92
A13	5.11	4.62	5.21
A14	6.17	5.23	6.26
A15	6.06	5.75	6.20
Landscape spaces			
B1	5.35	4.46	4.53
B2	5.24	4.98	5.09
B3	6.26	5.46	6.18
B4	5.87	5.28	5.93
B5	5.12	4.90	5.31
B6	5.38	4.85	4.88
B7	5.75	5.31	5.75
B8	5.74	6.30	5.72

²⁾ See Table 1.

2) 韓國傳統造景空間에 대한 選好度 分析

한국전통조경공간에 대한 일본인의 선호특성을 살펴보니, 芙蓉池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5.46), 愛蓮池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5.31)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2), 水요소를 포함한 공간에 높은 선호를 보였다. 한국전통조경공간 선호도에 세 대상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주어 선호경향이 낮다고 생각된다.

Within-class covariance matrix로 보면, 일본인에게 大造殿 뒤뜰 花階(2.356), 芙蓉池를 중심으로한 공간(2.205), 愛蓮池를 중심으로한 공간(2.139)이 판별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간임이 나타났는데, 한국전통조경요소에 대한 선호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西洋人の 韓國傳統庭苑에 대한 選好度 分析

1) 韓國傳統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 分析

서양인은 樹木(평균 6.42), 亭子(평균 6.26), 建築物(평균 6.20)이 가장 선호하는 요소로 밝혀졌는데(표 2),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건물적 요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목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분석의 결과를 보면 花階(2.358), 欄干(2.021), 水路(2.045)가 조경요소에 대한 선호도 판별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요소로 나타난다. 수목 요소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냄이 위의 결과와 일치된다.

2) 韓國傳統造景空間에 대한 選好度 分析

서양인은 芙蓉池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6.18)이 가장 크게 선호하는 공간이었다. 畝舍樓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5.93), 愛蓮池를 중심으로한 공간(평균 5.75)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2), 조경요소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물적 요소에 대한 선호경향을 보였다.

또한, 大造殿 뒤뜰 花階(2.025), 不老門을 중심으로한 공간(1.961)이 판별분석의 결과 나타난 판별결정 변인이었다.

4. 韓國傳統庭苑에 대한 選好도에 미치는 文化的特性的 영향

1) 韓國傳統造景要素에 대한 選好度 分析

세 대상간 조경 요소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에 대한 조사를 보면, 세 대상간 선호도의 차이는 굴뚝과 門을 제외한 13개 한국 전통조경요소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표 3), 특히 池, 水路, 怪石, 樹木, 花階, 橋, 階段, 欄干, 亭子에서 상당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01). 경관인식구조를 통해본 바와 같이 水, 樹木요소가 적용된 조경 요소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굴뚝과 門을 제외한 3개의 요소 모두에서 대부분 평균값의 비교를 통해서 볼때도 한국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서양인, 일본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가장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표 2).

또한 판별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Pooled within-class covariance matrix가 표 4에 나타

Table 3. NPAR Test of preference mean for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elements and landscape spaces among Korean, Japanese and Western

Variables	Chi-square	D.F.	Prob
Landscape elements ^{a)}			
A1	83.101	2	.0001****)
A2	39.513	2	.0001***
A3	32.212	2	.0001***
A4	10.450	2	.0054**
A5	16.610	2	.0002***
A6	54.886	2	.0001***
A7	26.064	2	.0001***
A8	19.220	2	.0001***
A9	3.799	2	.1496
A10	13.425	2	.0012**
A11	5.037	2	.0806
A12	20.884	2	.0001***
A13	17.969	2	.0001***
A14	67.626	2	.0001***
A15	8.450	2	.0146*
Landscape spaces			
B1	35.117	2	.0001***
B2	3.229	2	.1990
B3	26.613	2	.0001***
B4	21.079	2	.0001***
B5	8.593	2	.0136*
B6	14.893	2	.0006***
B7	7.429	2	.0244*
B8	12.569	2	.0019**

^{a)}See Table 1.
*)p<0.05, **)p<0.01, ***)p<0.001.

Table 4. Pooled within - class covariance matrix for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elements in Korean, Japanese and Western

Variables	A1 ^{a)}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 ^{a)}	1.850	0.827	0.535	0.291	0.433	0.199	0.374	0.447	0.163	0.253	0.211	0.110	0.268	0.468	0.394
A2		1.659	0.651	0.446	0.534	0.209	0.381	0.552	0.315	0.331	0.417	0.302	0.409	0.305	0.297
A3			1.768	1.002	0.688	0.260	0.474	0.420	0.391	0.458	0.440	0.387	0.541	0.395	0.490
A4				1.773	0.847	0.339	0.467	0.466	0.442	0.546	0.573	0.592	0.537	0.424	0.472
A5					1.503	0.307	0.332	0.473	0.503	0.554	0.411	0.487	0.524	0.519	0.461
A6						1.040	0.315	0.233	0.152	0.213	0.223	0.214	0.171	0.311	0.301
A7							1.873	0.350	0.310	0.264	0.265	0.401	0.220	0.304	0.305
A8								1.354	0.572	0.409	0.453	0.429	0.334	0.374	0.363
A9									1.730	0.811	0.701	0.681	0.608	0.508	0.424
A10										1.528	0.581	0.566	0.627	0.601	0.573
A11											2.053	0.616	0.551	0.287	0.368
A12												1.902	0.790	0.366	0.272
A13													1.665	0.580	0.551
A14														1.191	0.706
A15															1.234

^{a)}See Table 1.

나 있다. 조경요소중 굴뚝이 2.053의 최고치를 나타내어 세 대상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별력을 가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階段, 花階, 池 등의 순이었으며, 樹木이 1.040으로 세 대상을 판별하는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Within-group covariance가 동일한지 우도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Within-group covariance를 이용하여 추정된 판별 함수로부터 세 대상간 판별력을 검정한 결과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이 각각 65.22%, 76.87%, 79.20%로 모두 상당히 높은 판별력을 나타냈다(표 5). 이같은 높은 판별력을 볼때 세 대상 모두 해당 대상의 선호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한국전통조경요소에 대해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 간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전통 정원에 대한 인지가 높고 문화의 접촉이 많았던 한국인이 가장 조경요소에 대해 선호하였다.亭子 등 문화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물적 요소는 문화간 차이성을 나타냈고, 樹木과 같은 자연적 요소는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2) 韓國傳統造景空間에 대한 選好度 分析

大造殿 뒤뜰 花階, 芙蓉池를 중심으로한 공간, 宙舍樓를 중심으로한 공간, 不老門을 중심으로한 공간, 演慶堂 全景의 5개 공간(p<0.01)과 영화당을 중심으로한 공간, 愛蓮池를 중심으로한 공간(p<0.05)에 대해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의 경관

Table 5. Classification result by discriminating analysis among 3 groups in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elements and landscape spaces

Variables	Actual Group	Predicted Group Membership		
		Korean	Japanese	Western
Landscape elements	Korean	65.22	11.80	22.98
	Japanese	11.19	76.87	11.94
	Western	16.00	4.80	79.20
Landscape spaces	Korean	68.32	11.80	19.88
	Japanese	28.36	46.27	25.37
	Western	31.20	17.60	51.20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한국인이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서양인, 일본인이 각각 그 다음으로, 한국인이 한국전통 조경공간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음을 시사해 준다(표 2).

판별분석의 Pooled within-class covariance matrix를 통해 본 결과는 大造殿 뒤뜰 花階가 1.954로 세 대상간에 가장 중요한 판별력을 가지는 공간으로 나타났으며, 大造殿과 熙政堂 사이의 앞뜰, 不老門을 중심으로 한 공간 등의 순이었고, 演慶堂 全景이 가장 영향력이 작은 공간이었다(표 6).

Within-group covariance를 이용해 추정된 판별함수로부터의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의 판별력을 검정한 결과(표 5), 한국인 68.32%, 일본인 46.27%, 서양인 51.20%로 높은 판별력을 보여 세 대상 모두 해당 대상의 선호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Table 6. Pooled within - class covariance matrix for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spaces in Korean, Japanese and Western

Variables	B1 ²⁾	B2	B3	B4	B5	B6	B7	B8
B1 ²⁾	1.954	0.722	0.491	0.344	0.410	0.559	0.380	0.611
B2		1.685	0.533	0.366	0.582	0.585	0.718	0.684
B3			1.331	0.591	0.508	0.511	0.720	0.491
B4				1.362	0.700	0.519	0.515	0.505
B5					1.408	0.730	0.596	0.633
B6						1.612	0.699	0.611
B7							1.568	0.733
B8								1.329

²⁾See Table1.

한국전통조경공간에 대한 선호 평가에 있어 한국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특히 건물적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IV. 結論

본 연구는 한국전통정원 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昌德宮의 造景要素와 空間의 選好度를 조사하여 景觀 선호에 있어 문화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현대 조경의 설계에 한국적인 조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景觀 선호 및 평가에 있어 문화간 유사성과 차이성을 함께 나타냈다. 昌德宮의 조경요소와 공간에 대한 선호도는 한국인이 가장 높고, 서양인, 일본인의 순이었다. 한국전통정원에 대한 문화적 친숙도와 景觀 경험에 많은 한국인의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적 차이성이 입증되었다. 서양인은 일본인보다 한국전통정원에 대해 더 선호했는데, 상당히 이질적인 한국 景觀에 대한 서양인의 호기심과 관심으로 보여진다. 한국인, 일본인, 서양인 모두 조경요소 중 樹木 요소에 대한 선호경향이 높았는데 자연요소, 특히 수목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고 문화간 유사성을 나타내었다. 일본인과 서양인은 建物的 요소에 선호를 보여 이질적인 景觀이나 경험에 대한 경향을 표현했다.

일본인은 또한 水 요소에 선호 경향을 보였는데 일본의 조경 공간에 물 요소의 도입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지역적 친숙도를 보여 준 것으로 시사된다.

현대조경 설계시 어느 누구에게나 선호되는 景觀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요소의 충족과 건물의 독특한 표현과 그 안에 배치되는 각종 설치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설계시 계획이나 설계가의 직관적 景觀 경험의 적용이 아닌 일반인의 환경심리를 실제 설계시 적용하도록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引用文獻

1. 김대현(1994), "도시가로외 보행자 공간의 만족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조경학회지』, 22(3): 29-40.
2. 이영경(1994), "경관선호와 평가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 및 유사성에 대한 이해와 그 중 요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2(2):1-12.
3. 전인순(1989), 『조선시대 궁원의 조경요소에 깃든 종교적,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 창덕궁을 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2, 10-11, 44.
4. 지정섭(1994), 『조선시대 궁궐의 조경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 궁궐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39-40.
5. Balling, J. D. and J. H. Falk(1982), "Development of visual preference for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 and Behavior*, 14:5-28.
6. Buhyoff, G. L. and W. A. Leuschner(1978), "Estimating psychological hostility from damages forest stands", *Forest Science*, 24(3):424-432.
7. Devlin, K. and J. L. Nasar(1989), "The beauty and the beast:some preliminary comparisons of 'high' versus 'popular'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public versus architect judgments of sam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9:333-344.
8. Fiske, S. T. (1981), "Social cognition and affect", In Harvey, J. H. (Ed.), *Cognition, Social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9. Hershberger, R. G. (1980), "A study of meaning and architecture", In EDRA 1 *Proceedings of the First Annual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10. Kaplan, S. and R. Kaplan(1982), *Cognition and Environment for People*, New York:Plenum.
11. Hull, R. B. IV. and G. R. Revell(1989),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landscape scenic beauty evaluations: a case study in Bali",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9: 1-15.
12. Mandler, G. (1984), *Mind and Body:Psychology of Emotion and Stress*, New York:Norton.
13. Palmer, J. F. (1978), "An investigation of the conceptual classification of landscapes and its application to landscape planning issues", In S. Weidemann and J. R. Anderson(Eds.), *Priorities for environmental design and research part 1*, Washington,DC: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Association:92-103.
14. Simon, H. A. (1982), "Comments", In M. S. Clark & S. T. Fiske. (Eds), *Affect and Cognition*, Hills-

- dale, NJ: Erlbaum.
15. Tipton, W. E. and J. T. Savasdisara (1986a),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background of subject on their landscape preference evalua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3: 125-133.
 16. Tipton, W. E. and J. T. Savasdisara (1986b),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subjects on their landscape preference evaluati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3: 225-230.
 17. Tuan, Y. F.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Jersey: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8. Ulrich, R. S. (1981), "Natural versus urban scenes: Some psychophysiological effects", *Environment and Behavior*, 13: 523-556.
 19. Ulrich, R. S. (1992), "Influences of passive experiences with plants on individual well-being and health", In D. Reif (Eds.), *The Role of Horticulture in Human Well-Being and Social Development*, Portland, Oregon: Timber Press: 93-105.
 20. Yang, B. E. and J. B. Terry (1992),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preferences for landscape styles and landscape elements", *Environment and Behavior*, 24(4): 471-509.